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어요

글 | 양희진

그림 | 박수진

글 | 양희진

그림 | 박수진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현우와 동생 진우는 오늘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밤늦게 퇴근하신대요.



저녁 식사 전에 현우와 진우는
비누를 문혀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기도 쓰윽 수건에
닦았고요.



진우가 수저통을 열고 수저를
꺼냈어요.

“그래, 수저를 꺼낼 때는 손잡이
쪽을 잡고 꺼내야 된단다.
잘했다.”

할아버지가 칭찬하셨습니다.



현우가 밥과 국을 나릅니다.
밥그릇의 오른쪽에 국그릇,
국그릇 오른쪽에 수저를 나란히
놓아요. 세 사람들을 놓고 나서
현우는 밥그릇 왼쪽에 국그릇,
국그릇 왼쪽에 수저를 놓아요.
현우는 왼손잡이라 이렇게
먹어야 편하거든요.



오늘 반찬은 불고기예요.

“야, 맛있겠다!” 동생 진우가
먼저 먹으려고 젓가락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먼저 드셔야지.”
현우가 말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리면서 진우가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진우를 칭찬하셨어요.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떠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요.
현우는 조그만 조각을 찾으려고
젓가락으로 김치를 뒤적였어요.
할머니께서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밥 위에 놓아 주셨어요.

“반찬을 뒤적이면 안 돼. 네
젓가락이 닿은 반찬은 네가
먹어야 해.”



진우는 젓가락질이 서툴러
젓가락으로 불고기를 떠먹듯이
먹었어요.

“꼭꼭 씹어 먹어라.” 할아버지
말씀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을 다 삼키고
나서야 진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입 안에 음식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가 다 컸구나. 음식도 안
흘리고 야무지게 잘 먹네.”



“에취!” 할아버지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입을 가려서 입 안의 음식이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어이구, 미안하구나.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식사를
천천히 하는 편이세요. 현우와
진우도 어른들의 속도에
맞춥니다. 두 분이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자 현우와 진우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 같이
외쳤어요.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어요”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